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 (빌 2:5-8)



무더운 땅 아프리카에서 추위가 그리운 자들에게 한국의 혹독한 추위를 통해 까보베르데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내로 훈련된 마음들이 모여 사방으로 흘러 보내는 생수가 되어 우리를 약 재료로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 합니다.

쌍여진 말씀들이 사람을 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녹아 삶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이 흘러갈 때 생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 우리 부부의 그릇만큼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주권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 리본헤구아 교회 사역



까보베르데 현지인 마누엘 목사와 리노 목사의 협력사역으로 자립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남 침례교단에서 정기적으로 보내준 단기 팀들을 통해 많은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차 세대 리더들을 양육하는 모습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기도 합니다



● 뽀뽀 유치원 사역



80세대가 사는 마을의 부모님들을 전도하는 수단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며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디바 사모가 원장으로 네명의 교사를 두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 아샤다 그란지 프라스 사랑 마을 사역



5여년 동안 같이 성경공부를 하며 운동과 찬양으로 같이 먹고 놀아주었던 아이들이 이제 성숙해진 모습들을 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 또 앞으로 일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일을 위해



섬겨왔던 수 많은 청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브라질 선교사 페추리샤 가 이끄는 사역을

통해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 합니다.

● 의료봉사 사역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온갖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세워진 리보네구아 교회가 의료봉사를 통해 많은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쁨의 생수가 이웃을 향하여 흘러 갑니다.



● 기도제목

- *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 * 예수님의 생명으로 드러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 * 8 인승 이동 보건소 용 차량이 순조롭게 준비되길 원합니다.
- * 교회와 유치원, 사랑마을 사역과 의료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 * 크리스찬 초등학교 설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후원하며 섬겨 주신 가족 공동체의 사랑을 힘 입고 여기까지 달려 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